



Analyst 김세련 · 02-3773-8919 · sally.kim@sk.com

Issue Comment

- ✓ 사우디, 세계 최대 규모 석화단지 설립 발표
- ✓ NEOM 신도시 투자 계획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 행보 지속
- ✓ 좋아지는 발주 환경 감안, 섹터 단기 유가 플레이 가능할 것

[건설] 좋아지는 발주 환경의 단서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사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보도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200 억달러로, 2019년 사업 관련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밝힘.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하루 40 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해 연간 900 만 t 의 화학제품과 베이스 오일을 생산할 예정으로,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3 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GDP 1.5% 증가 효과가 기대됨
- 무함마드 빈살만의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 최근 사우디에서 발표한 1) 560 조원의 NEOM 신도시, 2)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사 설립, 3) 석유화학 플랜트 건립 등과 같은 뉴스 흐름을 감안할 때, '탈 Oil 2030' 기조에 따른 사우디 건설 발주 환경이 국내 건설사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상황임은 분명함. 향후 이러한 투자 확대 기조 속에 유가 반등이 나타날 경우, 놀려있는 건설주의 주가 반등이 예상됨
-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나, 해외 수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현 주가 수준에서는 고민없이 유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람코-사비,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 설립 추진

사우디, 세계최대 석화단지 짓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0 억달러(약 22 조원)를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한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와 국영 화학회사 사비(SABIC)는 26 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중략)

석유화학 복합단지 건설은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포괄적 경제개혁 구상 비전 2030에 따른 것이다. 원유 생산뿐 아니라 부기가 차가 높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 산업구조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의도다.

유가와 국내사 해외 수주 추이



자료: 한국경제, SK 증권

자료: Bloomberg, 해외건설협회,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